

중국, 한국 에폭시수지 반덤핑 조사

상무부, 12월28일 4개국 수입제품 대상 ... 한국산 PET칩은 덤핑재심

중국 상무부는 12월28일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에폭시수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12월28일까지 1년동안 4개국에서 수입되는 해당제품의 덤핑폭과 중국산업에 끼친 피해 등을 조사해 덤핑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상무부는 또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칩에 적용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2월28일 재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1년 기한의 재심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덤핑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반덤핑관세 징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중국은 1999년 12월 한국산 Polyester 칩에 대해 5년간 13-46%의 보복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했었다.

<화학저널 2004/12/30>